

우리도 부처님 같이
마음을 맑게
세상을 향기롭게

2011. 9
통권 215호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

달라진 “법왕사 홈페이지” 를 만나보십시오

www.bubwangsa.or.kr



디자인에 변화를 주었고, 원하는 메뉴에서 정 보가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메인 페이지는 회원님의 흥미를 돋울 수 있게 정보 통로 기능을 충실히 하도록 하였습니다. 법회의 동영상 강의가 한번의 클릭으로 찾아 들어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왕사의 주요 행사는 배너 형식으로 홈페이지 전면에 두었습니다. 또한, 도량 둘러보기를 보완하여 법왕사의 전경과 내부사진을 감상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왕사 카페에 관심이 있는 분이나 신행단체는 카페를 개설하시어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점이나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홈페이지 관리자에게 문의하시면 바로 시정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 홈페이지 관리자 : 053-766-3747

제22회 백고좌(28일차) 이동법회 및 송담 큰스님 친견법회 일정

법왕사에서는 제22회 경을론 삼장 백고좌 대설 법회중 28일차 이동법회를 아래와 같이 병행하고자 하니 불자님의 많은 동참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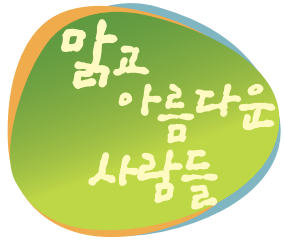
- 봉행 : 송담 큰스님 화두, 불명, 십선계 수계법회
- 일시 : 불기2555년(2011년) 10월 2일(일요일)
- 출발 : 오전 7시 법왕사
- 경유 : 대한불교조계종 제2교구 본사 용주사
- 도착 : 인천 용화사
- 문의 : 법왕사 종무소 ☎ 053)766-3747





우리도 부처님 같이
따음을따게 세상을 향기롭게
www.bubwangsa.or.kr

2011. 9
통권 215호



Contents

04 깨침의 향기

조계종 대종사 정무 큰스님
법왕사 주지 실상 스님
본원스님

10 알아봅시다 1

법당안에 되살린 궁전 속의 궁전

13 재미있는 불교설화

구렁이 아들

16 알아봅시다 2

불교식 제사의 의미

18 법왕피플

(주)세광하이테크

22 만화 불교이야기

기울어가는 불교를 붙든 무학대사

24 웰빙푸드

땅콩 찰떡, 땅콩 조림

24 사진으로 보는 법왕사 백중

29 법왕사 게시판

30 법왕사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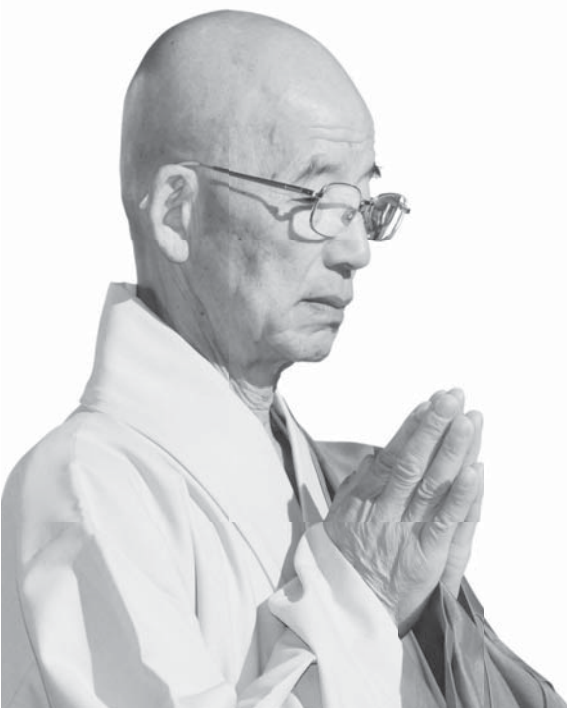
법왕지 <월간 따옴따옴 아름다운 사람들>이 매달 불제자 여러분에게 다가갑니다.
더욱 더 알차고 따옴따옴 아름다운 사람들의 따뜻한 이야기가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따옴따옴 아름다운 사람들 통권 215호 불기 2555(2011)년 8월 25일 발행

발행처 대한불교 조계종 법왕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잠 1길 2-9번지

종무소 T.053) 766-3747 · 9088 F.053) 767-6095 기획 회주 · 정무스님 발행인 실상스님 편집위원장 김영광
편집위원 원인, 지윤, 선문 취재기자 박학순 디자인 도서출판 풍경소리 기획 · 제작 도서출판 풍경소리 053) 424-0144

조계종 대종사 정무 큰스님



“병원 치료보다
중요한
근본적 치유법”

사람들이 아프면 병원을 찾게 되는데 병을 고치려 한다면 병원을 찾아서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적인 치유법을 찾아야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약을 먹으면 병이 치료되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약이 몸에 독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소승의 생각으로는 요즘의 현대의학은 없는 병도 만드는 의학이요, 병을 부추기는 과잉치료를 하는 의학입니다. 흔히 우리가 먹는 약에는 항생제가 들어있는데, 항생제로 인하여 내성이 생긴 신종바이러스가 생기는 것이 요즘의 현실이 아닙니까?

제 병도 못고치는 의사가 있는데,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하는 모범생들은 절대 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병이란 무엇입니까? 병은 내 삶의 잘못된 부분을 고치기 위한 치유활동입니다. 바로 병은 자기 자신의 삶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기 위한 치유활동이 바로

병인 것 입니다. 무절제한 생활, 나쁜 식습관, 유해 환경에의 노출, 심신의 스트레스, 수면이나 휴식 부족, 운동 부족 등 이러한 잘못된 생활습관 속에서 병이 생기는 것이고, 병을 그것을 고치기 위한 치유활동인 것입니다.

의사가 우리의 몸을 치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만이 병을 치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병원에 가서 받는 치료보다 중요한 것이 생활 속에서 자신을 바로 잡는 근본적인 치료법인 것입니다.

요즘보면 암, 뇌졸중, 당뇨병 그리고 고혈압 등이 중년들의 주요 사망원인 아닙니까? 또한 요즘 어린 아이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가 바로 아토피 아닙니까?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런 병들은 바로 잘못된 생활 습관에서 오는 질병들입니다. 담배를 피우면 폐암, 맵고 짜게 먹으면 위암, 과음이나 과로를 하면 간암 등 대부분 나쁜 생활습관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을 먹게 되는데,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중풍, 아토피 등 오늘날 문제가 되는 만성병 치료에 쓰는 약은 대부분 완치요법이 아니라 증상만 얼마간 가라앉히는 증상완화제로, 평생 먹어야 하는 약입니다.

그리고 약을 계속 먹을 경우 몸 전체의 균형을 깨고 내성이나 습관성 등의 부작용을 낳게 되며 새로운 병을 부르게 되는 것이 바로 현대의 의학입니다. 실질적으로 선진국의 경우 교통사고 사망자보다 약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진정한 치유를 하려 한다면, 약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생활' 을 바로 잡아 면역력을 높이는 치료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바른 생활, 즐거운 생활을 한다면 암은 사라질 것입니다.

법왕사 주지 실상 스님



인왕백고좌도량 (仁王百高座道場) 대구 법왕사

곧 있으며 우리 법왕사에서 22번째 백고좌법회를 봉행합니다. 예전의 호국불교였던 백고좌법회를 시작한 것이 벌써 22회를 맞이하였습니다. 이번 달에는 백고좌에 대한 의미를 간단히 말하고자 합니다.

진흥왕 12년에 고구려에서 신라로 귀화한 혜량(惠亮)스님이 최초로 개설한 백고좌법회, 이제는 저희 법왕사에서 그 명맥을 잇고 있지만 백고좌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지 저희 법왕사 가족들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백고좌법회는 구마리습이 번역한 《불설인왕반야바라밀경(佛說仁王般若波羅密經)》에 근거하여 신라 진흥왕 12년에 처음으로 개설되었습니다. 불설인왕반야바라밀경은 전체 8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1서품(序品), 제2관공품(觀空品), 제3보살교화품(菩薩教化品), 제4이제품(二諦品), 제5호국품(護國品), 제6산화품(散華品), 제7수지품(受持品), 제

8축루품(囑累品)으로 제5호국품에서는 나라를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 백고좌 법회는 이에 근거하여 개최되었습니다.

불설인왕반야바라밀경은 왕사성 기사굴산에서 설해진 경전으로 제목에서 보듯이, 어진 왕[인왕]에게 필요한 반야[지혜]에 대한 내용으로 국가의 권력자들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는 반드시 인자함, 즉 반야가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역설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5품에 “국토가 어지럽게 파괴되고 도둑이 와서 나라를 깨뜨리고자 할 때 100개의 불상, 100개의 보살상, 100개의 나한상, 100명의 비구, 4부 대중, 7중(衆)을 청하여 함께 이 경전을 듣고 100명의 법사를 청하여 반야바라밀을 청하라. 100명의 법사가 고좌에 앉아 사자후를 하시는 그 앞에 백개의 등을 켜고 백가지 향을 태우고 백가지의 빛깔의 꽃을 뿌려 삼보를 공양하는데 쓰고 삼의(三衣)와 기타의 집물(什物)을 가지고 법사께 공양하라... 그렇게 되면 온갖 잡신들도 기꺼이 나라를 보호해 줄 것이다.”고 말하고 있으며, 국가가 위기에 당면했을 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경전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고려 인종 때 백고좌도량으로 저희 법왕사와 이름이 같은 법왕사라는 사찰이 여러 차례 백고좌를 열었다고 전해지는 것입니다.

불교가 이 땅에 들어와 삼국시대를 지나고 고려시대를 거치는 약 천년이라는 세월동안 국교(國敎)로서 국가가 위기에 당면했을 때 호국불교로써 백고좌법회가 있었습니다.

이는 불설인왕반야바라밀경이 그 나라 모든 국민들의 참다운 호국방법과 정신자세 및 지도자들의 정치철학 등에 관해서 구도자적인 입장을 취할 것을 제시함으로써, 진정한 호국이란 외침이나 내환에 대한 방어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반야바라밀에 근원을 둔 충실한 실천이 이루어지지 않고 항상 분별하고 집착하여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것은 곧 호국을 방해하는 것이 되며, 이로 인하여 귀신 등이 출몰하여서 사회는 혼란에 빠지게 된다는 견지를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백고좌법회를 통한 호국이란 영토적인 차원의 방어나 보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일체 개인의 심신을 바르게 지키는 끝없는 수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백분의 고승대덕의 반야바라밀[지혜의 완성, 깨달음]을 듣고 심신을 바르게 하고 반야를 이루는 것이 백고좌의 진정한 의미일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백고좌를 통해 깨달음을 완성한다면 그것이 바로 호국의 길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아무튼 이번 백고좌 법회를 통해 여러분 모두 부처님의 깨달음을 찾아가는 법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본원 스님

- 토굴 정진중



공부해서 남 주는 공부가 되도록 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나와 남이 둘이 아니라는 화쟁(和爭)사상을 밑거름 한 화랑의 삼국통일과 대립을 초월한 원융무애한 법성(法性)을 민중에게 가르치며 이 땅에서 불국토를 일구었던 원효·의상의 초월적 깨달음의 경지.

그리고 중세 예술과 학문의 르네상스를 꽃피운 화가이자 건축가이며 과학과 해부학 등 다방면에 걸쳐 놀라운 재능을 보인 레오나르 다빈치의 천재성.

쿠텐베르크 보다 200년 앞서 세계최초로 문자를 활자화 한 흥덕사 스님들의 각고의 노력과, 가뜰한 불심으로 빛어낸, 세계 그 어디에도 유례가 없는, 우수한 민족문화의 정수로서 문화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기에 충분한 고려팔만대장경.

그리고 석조예술의 극치를 승화시키며 '모나리자의 신비의 미소'보다 신비를 더하는 거룩한 자태는, 보는 이로 하여금 형언 할 수 없는 마음을, 고요를 느끼게 하는 토함산 석굴암 부처님을 빛은 장인정신의 혼(魂).

식민지배국의 모진 탄압과 폭력에 맞서, 자주적 자립과 자력생산을 부르짖으며 인도 민중을 이끌면서 "인류가 먼저 알아야 할 일은, 과학기술의 진보에 의한 문화생활이나 국력을 바탕으로 한 군사대국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지켜야할 양심"이라고 호소하며 그 자신 평생을 두고 몸소 실천했던 위대한 간디의 비폭력 정신.

빈민 소외계층을 내몸처럼 돌보며 천사같이 헌신적인 사랑으로 지순·고결했던 성녀 테레사 수녀가 행한 인도주의 실천.

그리고 거란의 침입을 맞아 우리 외교 사상 가장 명쾌한 논리로 대응, 외교문서 한 장으로 침략군을 물리친 문신 서희(徐熙)의 뛰어난 외교전략과 논설.

무도한 몽고군이 성난 파도처럼 밀려들며 강토를 유린하고 짓밟는 생지옥의 참상을 보고 겪으며, 장차 우리민족이 나아갈 방향을 일깨우고 제시하며 자주적 주체정신을 심고 열을 고취시키고자 창칼보다 강한 붓끝으로 단일민족, 한민족의 주체적 시각에서 삼한의 역사를 써내리며, 우리 고대사를 풍요롭게 한 일연스님의 《삼국유사》가 전하는 바, 남(외세)에게 기대지 말고 힘 있는 백성(나라)이 되어야 한다는 주인의식이 발로(發露)로써, 이는 곧 "뉘어진 자기를 믿고, 바른법을 스승 삼으라"고 한 자아상실의 회복 차원에서 민족적 자각을 깨우려는 일연의 울곧은 민중의 주체의식화의 염원의 의지.

일신의 영달과 공명을 추구하는 무사안일의 사대주의자 김부식의 노선과는 상반된, 고구려의 기상과 화랑의 진취적 열을 계승, 자주적인 독립심을 고취, 옛 국토인 요동벌을 되찾고자 서경(평양)천도를 도모했던 진보적 개혁사상가 묘청과 훗날, 당시 조선 혁신적인 토지개혁을 함으로써 지배계층과 지방 호족들의 토지를 환수, "농지는 농노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며 험벗고 힘없는 억압받는 백성들의 편에서 민생을 살리는 개혁정치를 실현했으나, 신돈의 환속과 입궁을 조건으로 정사(政事)의 전권을 그에게 일임한 약속을 저버린 공민왕과 기득권을 버리지 않으려는 권력층의 음해로, 민중의 꿈과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도리어 요승의 누명을 써버린, 시대를 앞선 신돈의 현실적 개혁정치.

일찍부터 동방의 신동으로 불리며 7세 때 이미 문장을 지어 세상을 놀라게 했으나 조카 단종을 폐위하고 수양대군(세조)이 왕위 찬탈 했음을 듣고는, 책을 모조리 불살라버리고 입산출가, 가사문학을 연구, 우리말과 글이며 전통문화의 뿌리와 유래를 밝히며 《금오신화》를 엮어 써내린 김시습의 민족 열의 계승정신.

앞을 내다보는 탁월한 정치가로서 장차 다칠 임난을 예견하고 '십만양병설'을 주장, "정치"의 중심 과제는 백성들의 고통과 피폐함을 구제하는 일"이라고 한 경세가로서 본보기가 되는 선견에 의한 울곡의 유비무환책.

그리고 가혹한 억불·배불정책 속에 온갖 수모와 질시를 받으면서도 국난을 당해 초인적 구국의 일념으로 승병장이 되어 불상생의 불도(佛道)이면서, 오직 위급에 처한 나라를 구하기 위해 분연히 침략군과 맞서 싸우며 임난을 물리친 서산·사명을 비롯한 이름 없이 산야에 뼈를 묻은 무수한 스님들의 대승적 호국의 넋.

임난에 이은 재침략인 정유재란 시 섬진강을 따라 북상하는 왜적을 맞아 호남의 대지주로서, 항전을 위해 노비문서를 불태우면서까지 주민과 노비들을 독려하며, 자신도 끝까지 싸우다 순절한 김석주의 의기며, 금산전투에서 왜의 정예군과 맞서 최후의 1인까지 싸우다 살아남은 이 하나 없이 쓰러져 간 영규대사와 조현을 따르던 칠백의사의 핏빛으로 금산벌을 물들인, 붉고 진한 그 장엄토록 고귀한 희생.

(다음호에 계속)

법당안에 되살린 궁전 속의 궁전

단집에 관한 의미에 대하여는 예전에 자세히 소개를 하였기에 이달에는 단집의 유래와 장식에 관하여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집은 부처님과 보살의 위덕(威德)을 나타내는 장엄구로서 불전 내부에서 불상의 머리 위라 장식하는 궁전 속의 궁전, 열반의 집, 반야용선 속의 부처님 방, 혹은 석가모니가 득도한 보리수나무 그늘을 상징한다. 천개(天蓋), 산개(傘蓋), 보개(寶蓋), 화개(華蓋)라고도 한다.

이 단집이 생겨나게 된 것은 관불삼매해경 제6권에 “부처님이 도리천궁에 들어가서 미간의 백호광(白毫光)을 놓으니 그 빛이 칠보(七寶)의 대개(大蓋)를 이루어 마야부인의 위를 덮었다.” “동방의 선덕불(善德佛)이 묘보화(妙寶花)를 석가모니와 마야부인의 위에 흘렸더니 변화하여 화개를 이루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내용에서 비롯되었다. 또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아미타경에는 불국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위봉사 보명광전 단집

“불국토에는 아름답고 기묘한 여러 빛깔을 가진 백학·공작·앵무새·사리새·가릉빈가·공명조 등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항상 화평하고 맑은 소리로 노래한다.”

이러한 불국토의 장면을 실현하기 위하여 단집에는 용과 더불어 여러 가지 새들이 등장하게 된다. 화암사 극락전의 단집에는 운룡을 중심으로 비천상, 동자상, 구름, 봉황

등이 조각되어 있으며, 위봉사 보광명전의 단집은 천정에 황룡이 그려져 있고 뒤에는 또아리를 튼 황룡이 조각되어 있다. 황룡 주위에는 오색구름과



용주사 단집

여의주가 매달려 있으며, 현수 기둥의 끝에는 연꽃이 활짝 피어나 있다. 용주사 대웅전의 단집에는 좌우에 비천상이 있으며 불단 좌우 기둥에 여러 동물을 조각하여 짐승들도 부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여기서 보듯 용은 불전의 장엄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요소로 관념상 동물이지만 불교에서는 천룡팔부(天龍八部) 중의 하나로서 불법을 수호하는 존재로 등장한다. 뱀의 위협이 많았던 인도의 뱀승배 신앙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지며, 우리나라에 전래하면서 호국룡과 방위신의 성격도 지니게 되었다. ‘개천에서 용났다.’는 속담처럼 어변성룡(魚變成龍·잉어들이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 용문으로 뛰어 오르는데, 이 문을 넘으면 용이 되어 승천한다는 고사)의 고사와 함께 선비가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에 오르는 것을 뜻하기도 하며, 불가에서는 중생이 깨우친 존재로 변모함을 의미한다. 불전사물에서 목어는 물고기가 변하여 용이 되듯이 목어 소리를 듣는 못 중생들이 깨달음을 얻어 득도할 것을 의미한다. 또한 용이 물에서 뛰어 올라 승천하듯 하늘과 땅을 잇는 존재로 지상에 하늘 위로 지어진 궁전임을 상징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불전의 장엄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갖가지 꽃이다. 아미타경에 보면 “불국토에는 하늘의 음악이 울리고 황금으로 땅이 이루어졌으며 밤낮 여섯 때에 만다라 꽃이 비로 내리느니라.” 대방광불화엄경에 보면 “(여래의 궁전은)갖가지 아름다운 꽃으로 장식되었으며, 모든 장엄을 갖추어 빛이 구름처럼 흘러나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 이처럼 꽃의 장엄은 부처님 세계를 아름답게 꾸며, 부처님을 존귀하게 하는 것이다.

부처님이 설법을 마치고 삼매에 들었을 때나 깨달음을 얻었을 때 하늘에서 상서로운 꽃비가 내린 것을 우화서(雨花瑞)라고 한다. 법화경에 보면 “부처님은 조금 앞서 무량의경(無量義經)을 설하시고 무량의 삼매(三昧)에

드디어 아직 법화경의 설법을 시작 하시기에 앞서 여섯가지 상서로운 일이 일어났다. 이일을 법화육서(法華六瑞) 라고 한다. 법화육서란 설법서(說法瑞), 입정서(入定瑞), 우화서(雨華瑞), 지동서(地動瑞), 중희서(衆喜瑞), 방광서(放光瑞) 이다. 첫째 설법서는 부처님께서 무량의경을 설해 마쳤어도 대중이 일어나지 아니함ियो. 둘째 입정서는 부처님이 무량의 삼매에 드시며, 셋째 우화서는 하늘에서 흰연꽃, 붉은연꽃의 꽃비가 내린일이요. 넷째 지동서는 대지가 여섯 가지로 진동한 일이요. 다섯째 중희서는 대중이 여러 가지 상서를 보고 큰 설법이 있을것을 짐작하고 기뻐함ियो. 여섯째 방광서는 부처님의 미간 백호에서 광명을 놓아 동방 1만 8천 불국토를 비치신 일이다.” 이처럼 우화서는 부처님의 설법을 들으려는 대중들의 기대와 감격, 그리고 부처님이 설하는 법문의 경이로움 등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바로 이 상황을 법당에 구현해 놓은 것이 천정의 수많은 꽃 장식 문양들인 것이다.



천정의 꽃 장엄 중 내소사 대웅보전의 우물천정에는 활짝 핀 연꽃과 모란이 화려하게 단청되어 있다. 그 주위에 학이 그려져 있으며, 장구, 북, 비파, 바라 등의 악기가 그려져 있다. 경전에 나오는 극락에 올려퍼지는

천상의 음악을 표현한 것이다. 또한 우물천정 중앙에는 문고리가 달려있는데, 이 우물천정이 극락의 하늘을 여는 문이라는 의미이다. 이처럼 법당은 부처님의 세계를 함축적으로 상징해 놓은 곳이다. 대웅전은 부처님의 영산회상을 상징하고 있으며, 법당 안에 지어놓은 궁전인 단집은 부처님의 궁전을 형상하고 있다. 이는 법당을 불국토로 형상화하여 중생이 눈앞에 펼쳐진 불국토의 장엄을 보고 느낌으로서 종교적인 실천이 시작되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것일 것이다.

구렁이 아들

(부여·가장굴)

충남 부여군 임천면 가장굴이란 마을에 천석꾼 조씨가 살고 있었다. 재산이 많은 데다 늘그막에 기다리던 아들까지 보게 된 조부자 내외는 더없이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한 스님이 조부자 집 문간에 서서 염불을 하고 있었다. 마을 뒤편 무재산 보광사에서 탁발하러 내려온 천수 스님이었다.

『아이구 보광사 스님이시구먼유.』

『예, 그렇습니다.』

천수 스님은 합장한 채 공손히 인사를 했다.

『시주를 드릴 터이니 염불은 그만하시고 어서 판 집으로 가 보셔유.』

조부자 아내는 몇 줌 안되는 쌀바가지를 내밀었다. 스님은 메고 있던 바랑에 쌀을 받으면서 말했다.

『염불을 좀더 해야겠습니다.』

조부자 아내는 내심 거추장스러웠지만 정중하게 인사했다.

『감사하오나 지금 저희집 3대 독자가 안방에서 굳히 낮잠을 자고 있슈. 하도 귀한 아들이라 꺾까 조심스러워 부탁드리는 거여유.』

스님은 좀 언짢았지만 조용히 대답을 했다.

『허나 소승이 염불을 더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 귀한 아드님으로 인해 장차 이 집안에 일어날 액운을 소멸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원 별말씀 다하시네유. 애지중지하는 남의 집 아들 보고 액운 운운 하시다니…』

『미리 막지 않으면 평화스런 귀택의 화가 미칩니다.』

『화라구요?』

『화가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화의 근원이 무르익었습니다.』

『스님, 그렇게 뜬들이지 말고 무슨 곡절인지 속 시원히 알려주세요.』

아까와는 달리 조부자 아내는 스님에게 간곡히 사정했다.

『소승이 일러주는 대로 하시면 액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으로 막걸리 50말을 장만하여 은 동네 사람들을 집 마당에 청해 술잔치를 베푸십시오. 단, 오는 사람마다 숯 한 포씩을 가져오게 해 마당 가운데 숯불을 지피고 풍악을 울리십시오. 그럼 소승 이만 물러갑니다.』

조부자 아내는 영문을 알 수 없는 말이다 싶으면서도 천수 스님의 말을 묵살 할 수 없었다. 도에 통달해서 용하기로 이름난 보광사 스님이 허튼소리를 했을 리 만무하기 때문이었다.

그날 저녁, 조부자 아내는 스님이 일러준 대로 막걸리 50말을 준비하고 술잔치를 벌였다. 동네 사람들이 가져온 숯불이 별경게 달아올랐을 때였다. 방 안에서 아들이 「앙앙」 목을 놓고 우는 것이 아닌가. 조부자 아내는 풍악이 울리고 사람들이 웅성거려 놀라서 그러는 줄 알고 어르고 달랬으나 막무가내였다.

오만상을 찡그리며 마구 울어대는 아들을 보자 조부자 아내는 울화가 치밀었다.

『런놈의 액이 온다고 일러주어 남의 귀한 아들만 고생시키는지 모르겠네.』

부인은 천수 스님을 원망했다. 그때였다.

『보살님!』

천수 스님의 목소리가 들렸다. 스님이 나타나자 풍악도 멈추고 사람들의 웅성거림도 잠잠해졌다. 스님은 이상하게도 작은 관 하나를 어깨에 메고 왔다.

『아니 스님, 그 관은 왜 들고 오셨슈?』

『예, 우선 그 아이를 이리 내려 놓으세요.』

부인은 안고 있던 아들을 스님 앞에 내려놓았다. 아기는 더욱 소리 높여 울면서 쪼르르 엄마에게 달려가 치맛자락을 잡았다. 순간 천수 스님은 일언반구도 없이 아기를 나꿔채더니 관 속에 집어넣었다. 아기는 숨이 넘어갈 듯 울어댔다. 그러자 부인은 마치 실성한 듯 스님의 장삼을 쥐어 잡아뜯으며 욕설을 퍼부었다. 그러나 스님은 태연하게 부인을 떼어놓고 관을 숯불위에 내동댕이 쳤다.

사태가 이쯤되자 사랑방에 은인자중 앉아 있던 조부자도 뛰어나왔다.

『여보, 칼 가져와. 저 중놈의 배를 갈라 버리게.』

조부자는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칼을 찾았다.

이글이글 타오르는 숯불 위에 던져진 관은 순식간에 재로 변했다. 관의 형태가 완전히 사그러지자 마당 안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눈이 휘둥그레졌다. 칼을 찾던 조부자도 놀란 눈으로 관이 타버린 숯불더미 위의 광경을 바라보며 경악했다. 응당 있어야 할 아들의 시신 대신 큰 구렁이 한 마리가 뜨거움에 못 견뎌 꿈틀거리고 있지 않은가.

『아니, 우리 아들은 어디로 가고…』

조부자 내외는 천수 스님을 바라보며 외쳤다.

『저게 닥의 아드님입니다.』

구렁이를 가리키며 조용히 말문을 연 천수 스님은 이렇게 물었다.

『혹시 아기를 가질 무렵 구렁이를 죽이지 않으셨는지요?』

『글세요… 아, 생각납니다. 토끼에게 풀을 먹이고 있는데 풀 속에서 구렁이가 나타나 토끼를 잡아먹으려 하길래 들고 있던 낫으로 찍어 죽인 일이 있어요.』

『낫을 가져와 보시지요.』

조부자가 부러진 낫을 가져오자 천수 스님은 구렁이 뱃속에서 꺼낸 낫끝과 맞추어 보았다. 신통하게도 꼭 들어맞았다. 보고 있던 동네 사람들까지 어안이병병했다.

『큰일날 뻔했습니다. 구렁이가 조금만 더 자라면 내외분뿐 아니라 동네분들까지 모두 화를 입었을 것입니다. 정말 천만다행입니다.』

이때였다. 갑자기 하늘에 먹구름이 밀어닥치더니 천둥 번개와 함께 비바람이 몰아쳤다. 그리고 빗속에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다.

『천수야 이놈, 내 칠천지 원수를 못 갚게 방해한 널 그냥 두지 않을테다.』

소름이 끼칠 만큼 앙칼진 소리였다. 천수 스님도 자신만만하게 외쳤다.

『그래, 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

『여러 사람 앞에서 원수를 갚을 것이다.』

『어림없는 수작 말고 썩 물러가거라.』

순간 구렁이는 독기를 내뿜었다. 스님은 재빨리 합장을 하고 염불로 대항했다. 구렁이의 독기는 스님의 염불 속에 그만 사그러지고 말았다.

『허, 고얀 놈 같으니라고…』

천수 스님은 옷깃을 가다듬으며 유유히 절로 돌아갔다.



불교식 제사의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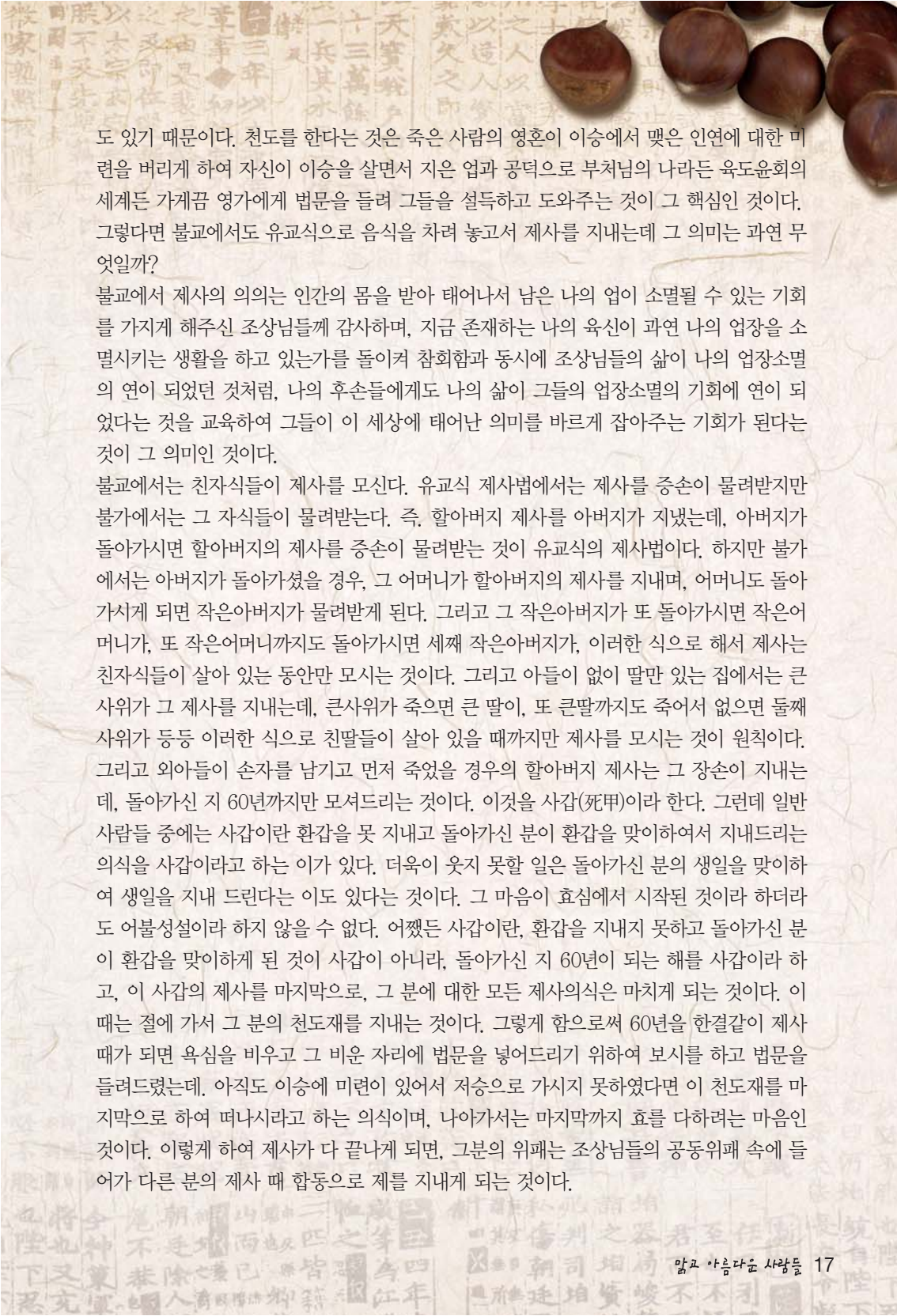
며칠 후엔 민족의 최대명절인 추석이 다가온다. 그렇지만 우리 불자들은 불교신자이면서도 그 제사법은 유교식으로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불자들의 불교식 제사라고는 절에 와서 지내는 구병시식이나 천도재가 고작인데, 이것도 본래의 성격을 상실한 채 의식만 불교식이지 그 취지나 성격은 유교식이나 굿과 별로 다를 바가 없이 치러지고 있는 것이다. 이 글을 읽는 불자는 지금 지내는 유교식 제사법보다 좀더 간소하고 정갈스러운 불교식으로 바꾸어 봄이 어떨런지...

우리는 명절날 제사를 모실 때 “차례를 모신다”고 말한다. 이말은 차(茶)-차, 예(禮)-예절, 즉 차로써 예를 지낸다는 말이다. 제사를 모실 때 우리는 잔을 올리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유교식으로 술을 올리고 있으나 불교에서는 차(茶)를 올리는 것이 예법에 맞는 것이다. 과거 우리네 제사에서는 차를 올림으로써 제사를 지내왔지만, 조선시대 유교사회로 전환되면서 술 문화로 바뀌었지만 말은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또 우리는 잔을 받아서 시계방향으로 즉 오른쪽으로 세 번 돌린 다음 놓게 된다. 이것은 의미 없는 행동이 아니라 불교적인 예법이다. 모든 경전을 살펴보면 부처님의 제자분이나 신도 분들이 부처님을 친견하실 때 편단우견, 우요삼잡, 우슬착지 합장공경이라는 말들이 나온다. 편단우견은 오른쪽 어깨를 들어내어 자신의 진신과 믿음을 나타내 보이는 표시이며, 우슬착지 합장공경은 오른쪽 무릎을 땅에 부치고 왼쪽 무릎을 세우고 합장하여 존경과 공경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중에서 탐돌이의 기본이 우요삼잡이다. 즉 오른쪽으로 세바퀴 도는 의식이다. 이것은 스승에 대한 존경과 사랑 표현이며 최고의 예를 표하는 의식인 것이다. 따라서 선망 부모와 조상의 은덕과 사랑에 대한 예로써 잔을 오른쪽으로 세 번 돌리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의미는 무엇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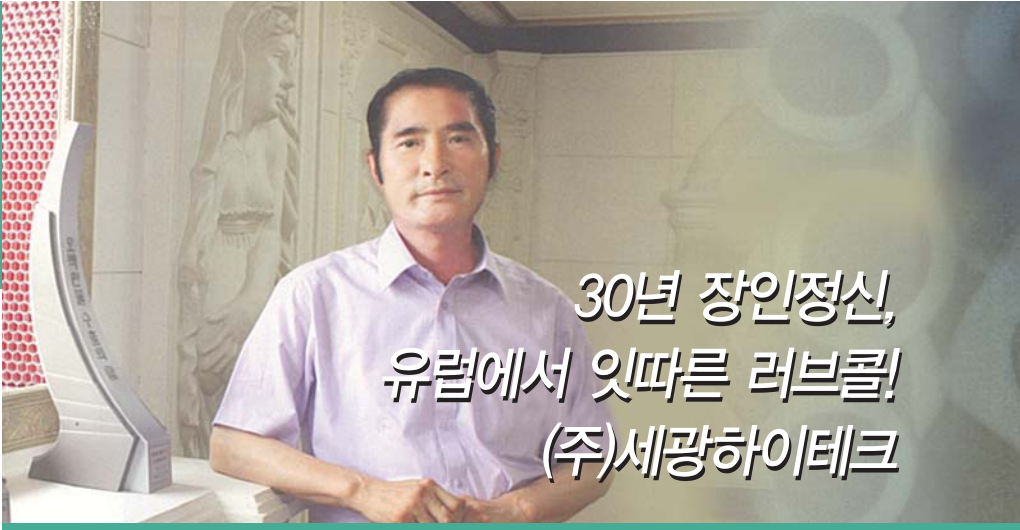
유교에서의 제사는 죽은 영혼을 살아 있는 사람처럼 취급하여, 효를 행한다는 것을 그 근본 뜻으로 삼아, 그분들이 돌아가신 날에 음식을 차려 그 영혼을 불러서 대접하는 것이 그 요지이다. 그러기에 제사도 귀신들이 활동하기 좋다는 시간인 오밤중이나 새벽녘에 지내는 것이 보통이다. 효를 행한다는 생각은 옳은 생각이나 죽은 사람을 살아 있는 사람처럼 취급하여 음식을 차리고 대접한다는 것은 불교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잘못된 것일 수 있다. 그것은 우리 불교에서는 영가에게 음식을 대접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유교식 제사의 의미처럼 실제로 그 영혼이 차린 음식을 먹으러 온다는 의미라면, 조상들이 천도가 안 되어 중음으로 남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조상들이 이승에서의 인연을 버리지 못하고 좋은 곳으로 천도되지 않은 채 계속 후손들에게 찾아온다는 의미가 될 수



도 있기 때문이다. 천도를 한다는 것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이승에서 맺은 인연에 대한 미련을 버리게 하여 자신이 이승을 살면서 지은 업과 공덕으로 부처님의 나라든 육도윤회의 세계든 가계끔 영가에게 범문을 들려 그들을 설득하고 도와주는 것이 그 핵심인 것이다. 그렇다면 불교에서도 유교식으로 음식을 차려 놓고서 제사를 지내는데 그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불교에서 제사의 의의는 인간의 몸을 받아 태어나서 남은 나의 업이 소멸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해주신 조상님들께 감사하며, 지금 존재하는 나의 육신이 과연 나의 업장을 소멸시키는 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돌이켜 참회함과 동시에 조상님들의 삶이 나의 업장소멸의 연이 되었던 것처럼, 나의 후손들에게도 나의 삶이 그들의 업장소멸의 기회에 연이 되었다는 것을 교육하여 그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 의미를 바르게 잡아주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 그 의미인 것이다.

불교에서는 친자식들이 제사를 모신다. 유교식 제사법에서는 제사를 증손이 물려받지만 불가에서는 그 자식들이 물려받는다. 즉, 할아버지 제사를 아버지가 지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할아버지의 제사를 증손이 물려받는 것이 유교식의 제사법이다. 하지만 불가에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경우, 그 어머니가 할아버지의 제사를 지내며, 어머니도 돌아가시게 되면 작은아버지가 물려받게 된다. 그리고 그 작은아버지가 또 돌아가시면 작은어머니가, 또 작은어머니까지도 돌아가시면 세째 작은아버지가, 이러한 식으로 해서 제사는 친자식들이 살아 있는 동안만 모시는 것이다. 그리고 아들이 없이 딸만 있는 집에서는 큰사위가 그 제사를 지내는데, 큰사위가 죽으면 큰 딸이, 또 큰딸까지도 죽어서 없으면 둘째 사위가 등등 이러한 식으로 친딸들이 살아 있을 때까지만 제사를 모시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외아들이 손자를 남기고 먼저 죽었을 경우의 할아버지 제사는 그 장손이 지내는데, 돌아가신 지 60년까지만 모셔드리는 것이다. 이것을 사갑(死甲)이라 한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 중에는 사갑이란 환갑을 못 지내고 돌아가신 분이 환갑을 맞이하여서 지내드리는 의식을 사갑이라고 하는 이가 있다. 더욱이 웃지 못할 일은 돌아가신 분의 생일을 맞이하여 생일을 지내 드린다는 이도 있다는 것이다. 그 마음이 효심에서 시작된 것이라 하더라도 어불성설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어쨌든 사갑이란, 환갑을 지내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이 환갑을 맞이하게 된 것이 사갑이 아니라, 돌아가신 지 60년이 되는 해를 사갑이라 하고, 이 사갑의 제사를 마지막으로, 그 분에 대한 모든 제사의식은 마치게 되는 것이다. 이때는 절에 가서 그 분의 천도재를 지내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60년을 한결같이 제사 때가 되면 욕심을 비우고 그 비운 자리에 범문을 넣어드리기 위하여 보시를 하고 범문을 들려드렸는데, 아직도 이승에 미련이 있어서 저승으로 가지지 못하였다면 이 천도재를 마지막으로 하여 떠나시라고 하는 의식이며, 나아가서는 마지막까지 효를 다하려는 마음인 것이다. 이렇게 하여 제사가 다 끝나게 되면, 그분의 위패는 조상님들의 공동위패 속에 들어가 다른 분의 제사 때 합동으로 제를 지내게 되는 것이다.



유럽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지역의 단일 제품을 손꼽으라면 섬유관련 제품이나 최근 급부상하는 자동차 부품을 먼저 떠올릴 수도 있지만 틀렸다. 일반인에게는 용어조차 생소한 피팅(Fitting)이란 제품으로 지난 30여 년간 한 우물을 판 ‘장인정신’을 가진 기업이라면 지역중소기업 중에서 유럽시장 매출 No.1 자리는 흔쾌히

차지할 만하다. 지난 2009년 대구스타기업에 선정된 (주)세광하이테크의 남다른 성공비결을 살펴보기로 한다.

지난 1977년에 설립되어 고압용 튜브와 파이프에 결합되는 피팅(유압용관이음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인 (주)세광하이테크는 EU시장에서 매출로만 본다면 지역 중소기업 중에서 단연 강자(强者)다. 성공비결에는 늘 그렇듯 기본을 지키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가지만 말처럼 쉽지 않다.

(주)세광하이테크의 기본은 ‘품질’

물론 여기에는 두 가지의 전제 조건이 있다.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지속적인 ‘설비 증설’과 우수 제품을 관리하기 위한 최첨단 ‘품질 관리제도’이다. 이 두 가지 조건 충족을

(주)세광하이테크의 주요제품

아답터

호스나 파이프를 서로 연결하는 부품으로써, 액체를 원활하게 흐르게 하여 각종 기계의 작동을 가능하게하는 부품



퀵커플러 Flat face type

부드러운 접촉과 이물질사용에 용이하고 체결시 누유가 발생하지 않음

로타리 커플링 Rotary Coupling

유압 장치가 회전할때 필요한 움직이는 조인트로서, 호수의 교압방자에 유용함



매니폴드

여러 개의 출을 가지는 스틸블록으로 유압동력을 솔레노이드 밸브를 통해 유압장치로 보내는 부품



퀵커플러 Poppet Valve type

호스의 접속용 이음쇠로서 쉽게 접속 또는 이탈이 가능한 제품

■ 국내에서 아직 사용되고 있지 않으나 유럽에서 "그린 피팅" 이라고 불리며 엄격히 사용을 권고하고 있음

■ 고압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특징임 (농기계, 건설 장비, 산업기계에 사용)

통한 성과는 내수시장에서의 60% 시장 점유율(Market share) 달성과 전 세계 13개국에 수출로 나타난다. 특히 탄소강을 소재한 피팅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주)세광하이테크의 피팅은 현재 미국, 유럽, 일본 등지의 바이어들에게 각 국가별, 기관별로 정해진 규격에 맞게 생산되어 공급되고 있으며 현재 1만여 종류에 이르는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 뿐만 아니라 원소재부터 완성품에 이르는 공정을 자체적으로 보유 중에 있다. 그 결과 지난 30여 년간 국내시장에서 확보한 자체브랜드를 기반으로 2000년도부터는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려 EU시장의 매출액이 2009년도 4억 6천만 원, 2010년 12억 7천만 원, 2011년도(상반기 수주기준) 20억 8천만 원 등 매년 평균 200%이상의 급성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조만간 발효예정인 한 - EU FTA로 인해 EU시장에서의 수출물량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특히 2년 이내에 수출액 천만불 시대를 열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2010년 (주)세광하이테크의 두가지 '새로운 도전'

■ 자체브랜드 개발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2010년 수출글로벌브랜드육성 사업에 선정되면서 SKN(SEKWANG TECH-NOLOGY)라는 자체 브랜드를 만든 것. 이를 통해 COUPLER를 개발, EU 및 일본에서만 생산하던 시장에 과감히 뛰어들었다. COUPLER는 지난 4월 독일 하노버에서 열린 전시회에 첫 선을 보여 많은 호평을 받았으며 자체적인 품질 테스트를 거쳐 2012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COUPLER란?

모든 산업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제품으로서 굴삭기, 농기계, 건설중장비, 제철공업, 조선, 의료기기, 항공기 기타 산업기계의 고압용 호스를 체결할 때 사용되는 제품



■ 외국인 전문인력고용

또 하나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종합진단 맞춤형 연계지원사업’을 통한 진단으로 회사 설립 이후 처음으로 외국의 전문 인력을 수혈했다. 보수적인 지역 정서상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회사의 미래를 보고 이정상 대표가 결단을 내린 것. 결과는 대성공이어TEK, 일본에서 COYD한 나카미조 준이치 기술고문은 품질 개선을 위해 제품 시험 검사장비를 직접 설계하며, 적극적인 개발 조력을 펼쳤다. 그 노력으로 일본 수입기계의 국산화를 이뤄 수익원의 비용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매출 역시 2년만에 2배 이상 성장하는 결과를 만들어 냈다. (주)세광하이테크의 성장의 또다른 특이요소는 바로 소사장제도이다. 이를 통해 20개 정도의 회사를 창업하게 되었고 고용창출도 함께 이뤄냈다. 최근 기업 경영에 있어 화두가 되는 ‘동반성장’을 이 대표는 오랜 기간 동안 몸소 실천하고 있었다.

소사장제도란?

쉽게 말해 일정기간 이상 몸담은 직원에게 자신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서 독립하도록 지원해주는 제도로 일종의 자회사 개념

그는 “세광하이테크가 성장하기까지는 직원들의 노력과 희생이 뒷받침 되었으며, 그런 소중한 분들에게 소사장제도로 새로운 기회를 드린 것 뿐이다. 이렇게 새롭게 창업한 회사와(주)세광하이테크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시스템은 신제품 개발과 철저한 품질관리로 이어지는 상호 상승작용을 일으키게 됐다. 내가 인복이 많은 것 같다.”라며 겸손해 했다. 그의 인재경영의 핵심에는 ‘소통과 믿은 이라는 기초가 튼튼해야 함’이 담겨 있었다.

우담바라 합창 단원 모집



법왕사에서 정무시선생님을 지휘자로 우담바라 합창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추가로 합창 단원을 모집합니다.

합창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노래하는 재능과 감각을 가지고 계신 불자님을 초청합니다.

특히, 남성합창단도 모집하고 있사오니 노래하는 즐거움을 함께 만끽하고 싶으신 불자님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모임일시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 모임장소 : 법왕사 합창실
- 지휘자 : 정무시 선생님(대한불교음악인협회장)
- 문의 및 접수 : 법왕사 종무소 ☎ 053-766-3747
- 홈페이지 : www.bubwangsa.or.kr

법왕사 금강사물단 단원 모집



법왕사에서 박성경 단장님을 모시고 한국 고전 전통문화의 대표적인 쟁과리, 장구, 북, 징으로 표현하는 사물놀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술의 멋과 흥을 창조하는 사물놀이에 재능과 끼가 있는 불자님을 모시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일 시 : 매주 (월, 목요일) 오후 2시
- 장 소 : 법왕사 복지관
- 단 장 : 박성경(환경문화예술단회장)
- 과 목 : 풍물12마당, 영남사물, 민요, 각설이장단, 천수바라춤 등 지도
- 문 의 : 종무소 053) 766-3747
- 홈페이지 : www.bubwangsa.or.kr



기울어가는 불교를 붙든 무학대사(2)



뒤에 태조가 태종(이방원)을 미워하여 옥새를 가지고 함흥에 머물고 있을 때 태종은 무학 대사를 파견하였다.



대사, 제발 상왕의 노여움을 풀어 주시오.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길을 떠난 무학 대사는 태조와의 친분과 능숙한 지혜로 태조의 마음을 돌리는 데 성공하였다.



설령 싫다고 해도 왕업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 자식에게 주는 게 낫지 않습니까?

방원이 높은 밭지만 대사 말이 맞소.

그리하여 태조가 한양으로 돌아왔고 조선왕조는 탄탄대로에 들어서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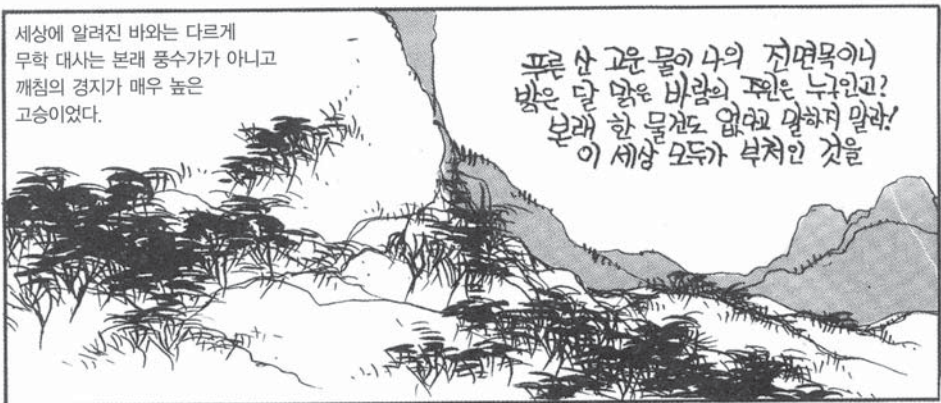
이번 일은 왕사가 아니고서는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었소. 고맙소이다.

성품이 질박하여 글을 쓰지 않았고, 천진한 성품에다 남에게 베풀기를 즐겼던 무학 대사는 78세에 금강산 진불암에서 입적하였다.



보살행 가운데에는 어린아이의 행(行)이 제일이거든.

세상에 알려진 바와는 다르게 무학 대사는 본래 풍수가가 아니고 깨침의 경지가 매우 높은 고승이었다.



푸른 산 고운 물이 나의 진면목이니
밝은 달 맑은 바람의 주인은 누구인?
본래 한 물건도 없애 말하지 말라!
이 세상 모두가 부처인 것을

※자료제공 : 저자 김정빈 | 그림 최병용 | 출판사 솔바람



선재 스님

선재(善財)스님은 80년 경기도 화성 신흥사 청소년 수련원의 성일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여러 선방에서 정진했다. 94년 중앙승가대학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했으며, 졸업논문으로 <사찰음식문화연구>를 발표했다.

이 논문을 통해 그는 경전을 근거로 하여 사찰음식의 특징과 유형을 나름대로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갈 바를 이야기한 바 있다. 그후 그는 생명을 위협을 받을 만큼 심한 간경화를 앓게 되었고, 건강을 되찾기 위한 방법으로 사찰음식을 선택하게 된다. 95년 3월부터 현재까지 불교TV <푸른 맛, 푸른요리>를 통해 사찰음식을 소개하고 있으며, 그때부터 보리사에 직접 찾아오고, 전화로 문의하는 수많은 환자들에게 사찰음식에 대한 상담을 해주게 된다. [선재스님의 사찰음식]은 바로 그의 이런 경험이 바탕이 되어 만들어졌다. 현재 그는 여주 보리사에 머물면서 사찰음식 연수생들을 지도하는 한편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가정학과 겸임교수이자 선재사찰음식연구원 원장으로 사찰음식을 지도하고 있다.

땅콩 찹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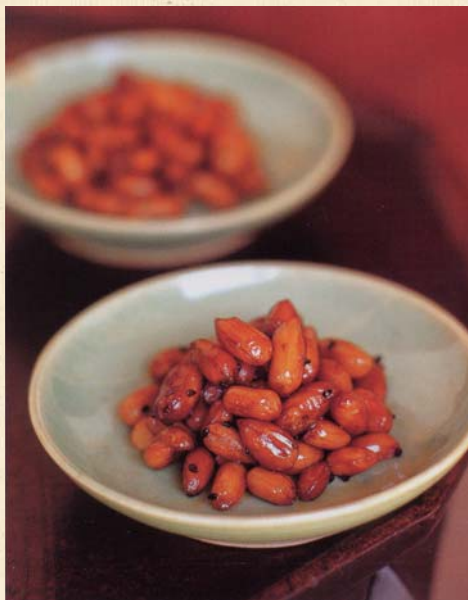
재료 찹쌀 5컵, 생땅콩 5컵, 소금약간

- 1 찹쌀은 12시간 정도 물에 불린 후 소금을 넣어 방앗간에서 두 번 정도 곱게 빻아 체에 한 번 내린다.
- 2 땅콩은 겉껍질만 벗겨 물에 불렀다가 씻어 체에 건진 후 찹쌀가루에 버무린다. 땅콩의 고소한 맛을 살리기 위해 설탕을 넣지 않지만 단맛을 좋아한다면 설탕 1컵 정도를 땅콩, 찹쌀가루와 함께 버무린다.
- 3 시루 밑에 창호지나 무, 호박잎 등을 깔고 ②의 찹쌀가루를 올린 후 젖은 행주는 덮어 30분 정도 쪄 다음 뚜껑을 덮어 충분히 뜸을 들인다.

땅콩 조림

재료 생땅콩 5컵, 식용유 1큰술, 진간장 1컵, 물엿 3큰술, 황설탕 1큰술, 참기름 · 통깨 약간씩

- 1 생땅콩에 잠길 만큼의 물과 식용유를 부어 우르르 끓으면 뚜껑을 열고 약간 덜 익은 듯 삶는다. 식용유를 넣어야 조렸을 때 땅콩 껍질이 잘 벗겨지지 않으며 뚜껑을 열고 조리야 땅콩의 고소한 맛을 살릴 수 있다.
- 2 다 삶아지면 물을 1/5정도만 남기고 따라낸 후 여기에 진간장, 물엿을 넣고 조리다. 물엿을 많이 넣으면 땅콩이 서로 달라붙으므로 물엿의 종류에 따라 양을 조절할 수 있도록 세 번 정도로 나눠 넣는다 생각하며 조금씩 섞는다. 거의 다 조려졌을 때 황설탕을 넣고 센불에서 휘저으며 좀 더 조리다. 마지막으로 참기름과 통깨를 넣고 살살 버무린다.



음식이 약이다 | 땅콩

땅콩은 콩에 비해 지방은 3배, 비타민은 B1은 12배나 많다. 특히 지방은 대부분 불포화지방산이라 동맥경화의 원인인 콜레스테롤을 녹이는 작용을 한다. 게다가 머리를 좋게 하는 성분이 있어 정신노동을 하는 사람에게 특히 좋다. 하루에 땅콩 10알이면 비타민E, 비타민F의 1일 필요량을 채울 수 있을 정도. 하지만 볶아 먹으면 기름이 산화되어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 특히 술과 볶은 땅콩을 같이 먹으면 간에 부담이 된다. 되도록 생땅콩을 삶은 후 조리 밥반찬이나 간식으로 먹는 것이 좋다.

📖 사진으로 보는 법왕사 백중이야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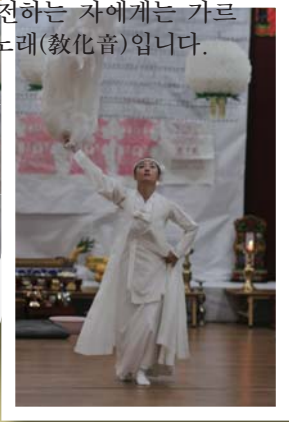
법왕사 백중49제에는 산 사람과 돌아가신 영가들 모두 환희심을 얻었으리.....

그들은 함께 법문을 들었으며, 함께 의식을 하며, 살풀이, 작법무 등을 보며 우란분제 [거꾸로 매달리다]의 의미처럼 거꾸로 매달린 것을 바로 세우고, 묶인 것은 풀어서 업을 끊어 자유롭게 하였으리라 생각됩니다.





범패(梵唄)는 절에서 재(齋)를 올릴 때 쓰는 음악입니다. 한국 불교음악의 총칭으로 가곡, 판소리와 함께 한국 3대 성악으로 불립니다. 범패의 종류로는 안채미소리·훗소리·깃소리·화청(和誦) 등이 있고, 작법(作法) 즉 무용이 곁들여집니다. 이러한 범패로 대변되는 불교음악은 단순한 음악이 아닙니다. 수행자에게는 명상의 음악이요, 간절히 법을 구하는 자에게는 법을 담은 법음(法音)이며, 법을 전하는 자에게는 가르침을 전하는 교화의 노래(教化音)입니다.



살풀이춤
원한에 맺힌 영가는 원풀이를,
고(苦)에 맺힌 영가는 고티를,
한에 맺힌 영가는 한풀이를
흰 수건에 담아 극락왕생하시라고
인도하는 춤입니다.

범왕사에 피는 꽃 우담바라
합창단의 음성공양
범왕사 우담바라 합창단과
정무시 선생의 음성공양을
통하여 백중의 참뜻, 부모님의
깊은 은혜를 다시한번 생
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법왕사 불교학생회 회원 모집

법왕사에서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부처님의 법을 전하고자 불교학생회 회원을 모집합니다. 다양하고 즐거운 교육시스템으로 원만한 대인관계 및 포교활동과 봉사활동을 통한 인재 양성의 장으로 만들려고합니다. 법왕사 불자님의 자제분과 불교에 관심이 있는 학생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대상 : 대구지역 중·고등학생
- 모집 : 수시모집
- 법회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 법왕사 복지관 강의실
- 창립예정일 : 불기2555년(2011년) 10월 중순
 - ※ 일일 교사의 추천을 받습니다.
 - ※ 문의 및 접수 : 법왕사 종무소 ☎ 053) 766-3747
 - ※ 홈페이지 : www.bubwangsa.or.kr

서예 한문 무료 강좌 개설

법왕사에서는 대남서예원 취은 김귀자 원장님을 모시고 매주 1회 서예 한문 강좌를 개설 합니다. 서예에 관심이 있거나 한문을 새롭게 배우고자 하시는 불자님께서서는 무료 강좌이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일 시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장 소 : 법왕사 강의실
- 선 생 님 : 대남서예원 취은 김귀자 원장
- 신청문의 : 종무소 053) 766-3747
- 홈페이지 : www.bubwangsa.or.kr

법왕사 소식

■대중사 정무큰스님 친견법회 및 삼사순례 봉행

지난 7/4일 조계종 대중사 이신 정무큰스님을 친견하고 법문을 듣는 삼사순례 법회를 봉행하였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가운데에도 법문을 통해서 생활속에서 건강을 찾으라는 뜻 깊은 법문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옛 맛을 그대로 간직한 칠장사와 다양한 불교문화의 진수를 볼 수 있는 보탑사를 순례하는 삼사순례를 봉행하였습니다.



■백중(우란분절) 49재 봉행

백중이란 자기가 지은 업들이 부처님의 법력에 의하여 해방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세세생생 동안 윤회하면서 인연을 맺었던 선망부모형제 등 권속들을 극락으로 왕생하게 하고 직접 인연이 없더라도 밝은 곳으로 가지 못하고 어두운 허공을 떠도는 수많은 영가들을 천도하는 의식을 봉행하는 날이므로 저희 법왕사에서도 백중을 맞이하여 49재를 여법하게 봉행하였으며, 효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하는 뜻깊은 우란분절이 되었습니다.

법왕사 참·선·방 운영 공고

법왕사에서는 불기 2555년 하안거해제와 함께 참선수행을 하고자 하는 재가자들을 위해 주지 실상스님께서서는 복지관 2층에 참선방을 개설하였습니다. 일반 재가불자들은 간화선이 어렵다고 합니다만, 화두를 드는 순간에 이미 정혜의 경지에 다가서는 것 입니다.

참선수행을 통해 얻어진 지혜로 일상생활에서 나보다의 남을 배려하고 원만한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는 실상스님은 개인이나, 단체든 누구나 수행의 의지만 있다면언제라도 환영합니다.

- 대 상 : 일반 재가불자 (남여노소 누구든지 아무 조건없이 배울 수 있습니다.)
- 장 소 : 본당 2층 법당
- 일 시 : 불기 2555년 8월 16일부터 평일(매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 복 장 : 편하고 자유롭게

법왕사 게시판

새법우 명단

서 구	조한봉	조광순	조민수	조혜정	박선경	장영숙	박수희	박용민	
달서구	윤역희	김화자	윤재훈	윤재운					
북 구	김진호	현미령	김민준	이연옥	정은선	한정수	정은미		
남 구	이재현	김해주	이지우	박정아	이재희	천철수	이영숙	천재홍	천재민
수성구	심영선	유지용	한미숙	유치우					
중 구	배소임	이동주	민정자	이동천	노항희	이동하	한성진	이수용	
울주군	권오성	정보석							

평생위패봉안

밀양후인 박소삼봉영가	밀양후인 박소영훈영가	경주후인 최소인수영가	김해유인 김씨손달영가
곡부후인 공무출영가	곡부후인 공길부영가	경주후인 김소상기영가	함양유인 박씨월선영가
달성유인 서씨갑임영가	평택후인 임소태규영가	진주후인 박소봉락영가	분성후인 배소점식영가
함양유인 박씨외남영가	강릉후인 함소연식영가	의령후인 옥소재선영가	전이후인 이소용학영가
안동유인 권씨분행영가	거창후인 신소용광영가	거창후인 신소상범영가	

산신인등 접수 하신 분

300이중락 1810이상원 142김아령 143김진호 176김태욱

인등접수 하신 분

56곽재규 1530정숙 154윤재영 155윤지영 2360이병석 599박재민

수능입재 대중공양

문지수	양봉홍	김찬용	남기덕	방민지	문주성	전세린	김경민
이남권	홍수연	강선규	윤정용	송규호	이영욱		

원불봉안불사 동참자

3236박호현 3237박승우 3238박오현 3239김성미

범종불사 동참자

7150이우성 7160이채원 717전원희 7180이상운 7190이상욱 720방재웅 721오수중 722김종희
7230이성희 724조한봉 725조광순 726조민수 727조혜정

축하드립니다.

- 신장회 회장님으로 불교대학 1기 회장인 **사공순옥 불자님** 위촉했습니다.
- 산신회 총무 **김명숙** 위촉했습니다.

왕생극락 하옵소서

- 안미옥 법우님의 처자모유인 성주도씨 부연영가님의 기제사가 6월 9일 있었습니다.
- 장철영 법우님의 동생후인 안동장공 철호영가님의 기제사가 6월 14일 있었습니다.
- 김현혁 법우님의 엄부후인 안동김공 해복영가님의 기제사가 6월 17일 있었습니다.
- 함형주 법우님의 처자모유인 경주김씨 순애영가님의 기제사가 6월 24일 있었습니다.
- 박재윤 법우님의 엄부후인 밀양박공 영훈영가님의 막제가 6월 29일 있었습니다.
- 김희동 법우님의 처자모유인 광산이씨 복선영가님의 막제가 7월 2일 있었습니다.
- 박호현 법우님의 엄부후인 밀양박공 재의영가님의 막제가 7월 5일 있었습니다.
- 박진희 법우님의 처자모유인 밀양손씨 금자영가님의 기제사가 7월 11일 있었습니다.
- 박영민 법우님의 엄부후인 밀양박공 삼봉영가님의 막제가 7월 21일 있었습니다.
- 김영애 법우님의 처자모유인 달성서씨 갑입영가님의 막제가 8월 5일 있었습니다.
- 임기진 법우님의 엄부후인 평택임공 태규영가님의 막제가 8월 6일 있었습니다.
- 배재한 법우님의 처자모유인 함양박씨 외남영가님의 막제가 8월 16일 있었습니다.
- 함형주 법우님의 동생후인 강릉함공 연식영가님의 막제가 8월 18일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보 도움 주신 분

김성훈 1,000부 법운주 500부 청송 약수터 500부
서명숙 최육남 500부 구실상화 100부
권마하연 50부 사공순옥 50부

● 돼지회향 김병수

● 법 공양 하신분

행효자 이인식 ㄸ 엄부후인 연양이공 호련
자모유인 월성손씨 신동 부모 은중경 50권

● 떡 공양 하신분

권화순 최윤재 한현식 정입분 이동학 양지영 류윤만
조현봉 김태영 김영애 김상수 한혁식 김우성 황상민
감로연 김동용

● 쌀 공양 하신 분

최진현 원도연 조기수 강소남 윤동환 권무길 조철제
박진성 김상한

● 무사입대 축원문 정성욱 ● 제습기 강상훈

● 사업기도 축원문 권오성

● 소나무 축원문

류윤만 구실상화 황미선 허정현 김민준

● 시험합격기도

조현봉 김지는 김우성 김미령 박준용 김민준 이우성
양봉훈 임상덕 신나라 김금강심

● 단집, 운각, 단층 불사 축원문

최인숙 최재훈 이은미 최윤재 김금강심 신명균
구실상화 신승훈 신현수 신명재 최인숙 이종량
최인숙 류윤만 이진우 김영애 최재훈 이은미 최윤재
ㄸ김사범 ㄸ서갑임 ㄸ최종률 ㄸ최리 박경영 박해진
박종성 이진우 임규자 유성중 김민섭 김태욱 허정현
장백련화 수월심 이순일 전법성심 나은정 윤경진
이바리밀 곽춘자 정성현지 보문화 장명환 이상훈
박옥순 이보단화 윤숙원 조규인 정시영 정국영 장영원
서순단 전대원화 이영석 박경덕심 정효교 정정교 신종백
신종태 정선규 이임숙 장영숙 황영선 김영란 이영희 황미선
최미옥 정용임 박재희 박지혜 김필선 신종태 권재현 박경록
이재학 박문수성 신타기 신종배 안희환 이수민 박성주 정돈
망 김영애 복위 엄부후인 김영김공 자모유인 달성서씨
조모유인 함양조씨 오빠후인 김영김공 망 최재훈 복위
엄부후인 영천최공 작은조부후인 영천최공 고모유인 영
천최씨 동생후인 영천최공

● 꽃등 다신분

강선규 강대범 하정우 황미선 문지수 초파일 꽃공양
임상덕 강숙희 김혜정 강정숙

● 생일기도

이주원 김경란 정춘화 최윤재 한현식 정입분 이동학

● 기타 축원문 명정희 현상호

백중대중공양

백중초재 대중공양

김태운 이인숙 정용임 강경석 전숙희 윤철욱 유유남 이순일 이세정 강정선 윤은식 정미화
심규암 권혁만 부창떡집 정경호 정명희 김형섭 서보경 김영희 김창덕 명정희

백중2재 대중공양

황미선 백대행심 천지화 보단화 김남두 윤다경 윤선민 배희경 이기창 조혁규 김정권 신장희
한현식 류운만

백중3재 대중공양

주복귀 지장회일동 이종현 김혜명심 이보문화 서명진 박해진 이정옥 배희경 묘장엄 법운주
이태숙 정수선득 김태영 이세정

백중4재 대중공양

주복귀 ㄷ정동필 이순태 김원달 김현숙 조감로연 안수영 오난옥 조미옥 박해진 양봉훈 김하균
최은정 김명숙 이정애 김혜명심 유명륜행 변선유화 관음회일동

백중5재 대중공양

양영갑 권상태 양문갑 김현숙 백보현행 백분남 최분소 이영숙 이종량 조태금 박귀분 이정래
김중숙 조진불심 유명륜행 이재학 정영국 박정우 권마하연 심규암 백용길 이수월심 권연실화 윤계한
구실상화 주복귀 이세정 박진태 권혁진 류영훈 최태수 이관수 조수호

백중6재 대중공양

류운만 이경숙 류희승 류주연 김봉조 이정화 김현숙 김창용 김호연 신진아 주복귀 손국본
최정심행 양영갑 권귀정 안혜진 양봉률 권상태 김잠분 권재현 권수현 권은경 권주희 권보경
양문갑 황춘연 양봉훈 양혜영 양지영 이세정 조미숙 정국영 정시영 정영미 주복귀 박진태
권혁진 류영훈 최태수 이관수 조수호 문채욱 조영흠 조지혜 박해진 박중선 여보리자 김영숙
이감로행 정대원성 금대수 전숙희 석광영 권혁만 이보단화 심규암 이바리밀

백중막재 대중공양

연실화 실상화 감노행 김순태 노수정 사공순옥 황춘연 이정화 김영주 이민숙 박해진 박정숙
최태희 금대수 이종현 박향숙 유명륜행 박영순 최미옥 김점미 주범등심 노동근 전병학 권태묘
차장건 조기수 박경덕심 김계숙 이바리밀 심규암 권상태 박향숙 신용흥 김상한 이승엽 김분용
일심회일동 부창떡집 지장회일동 관음회일동 신장회일동 산신회일동 합창단일동

불자의 집

우성주택건설(주)

울산시 울주 삼남 고통 1630-5
(대표이사: 權五成)
Tel. [052] 262-0400

빌라같은★우성빌우성★

신축 원룸·투룸·쓰리룸(스카이 A동, B동)

풀옵션, 특별옵션 | 전, 월세임대가능

관 음 회

회장:권마하연
부회장:김법희성, 김해명심
매월음력24일 기도정진

대일승복사

대구 중구 남산동
661-6번지(반월당고개)
Tel. 426-7486 / 424-9030

자유광고기획

대구 중구 달성동 115-11
Tel. 562-5595 / 352-5550

신 장 회

회장:사공순옥
총무:유명륜행
매월음력 10일 기도정진

대 우 공 예 사

대구 동구 봉무동 85번지
Tel. (053) 983-9103

법왕요리교실

黃美善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지 장 회

회장:구실상화
부회장:○○○, 총무:백법성행
매월음력 18일 기도정진

삼성(고속)관광

최영달
H.P. 010-4320-5588

한진기사식당

대구 남구 봉덕1동 982-11
Tel. (053) 472-8087

우담바라합창단

지휘:정무시, 단장:허정현,
반주:박수진
매주 수요일 14시

풍경소리

대구 중구 봉산동
218-8번지(대표:박학순)
Tel. (053) 424-0144

장어와 미꾸라지

(추어탕전문)

남구 봉덕동 1121-30(유종건 & 최분규)
예약전화 ☎ 053)474-4803

법왕사 금강사물단

(단원모집)

단장:박성경, 부단장: 최희순
매주 (화,목요일) 오후 14시

부창떡집(혼수떡)

대구 수성구 파동 199-18
Tel. (053) 761-5790

해덕한우암소 숯불갈비

대구 수성구 두산동 882-9
Tel. (053) 768-7007

大南書藝院

대구 수성구 범어3동7-14번지
선빌딩 4층 (金貴子)
Tel. (053) 751-7478

연 꽃 양 초

金東浩
Tel. (053) 811-5331

청송 약수 삼계탕

대구 서구 평리4동 1371-7
(민병철)
예약전화 ☎ 053) 566-3344

살 풀 이

유희연
무형문화재 7호 전수

법향 야생화 교실

법왕사 양생화 교실 회원모집
H.P. 016-528-3301

U SEE 스튜디오

(웨딩포토)

대구 수성구 파동 5거리(유성중)
Tel. (053) 290. 0599

동 양 불 교

대구 중구 남산동 929-8 (노경균)
Tel. (053) 255-8118

二和플로리스트

※ 전국꽃배달서비스 ※
Tel. (053) 422-1604

등내과.정형외과의원

경북 포항시 남구 해도2동 46-2번지
Tel. (054) 274-1212

2011년 6월 6일 부터 8월5일까지 CMS접수 하신 분

108석등

조규인 3만원	현미숙 3만원	현미숙 3만원
문영자 2만원	문영자 2만원	조영자 6만원
이정연 2만원	윤경진 8만원	윤경진 8만원
이창형 3만원	이창형 3만원	

산신인등

강성연 2만원	박초진 1만원
---------	---------

원불봉안

최연우 3만원	권영분 2만원	권영분 2만원
김옥자 1만원	김옥자 1만원	한창표 10만원
송화중 3만원	송화중 3만원	김점숙 2만원
김점숙 2만원	김순희 2만원	김순희 2만원
심규암 5만원	심규암 5만원	김금순 4만5천원
김금순 4만5천원	민병철 3만원	민병철 3만원
이종매 3만원	이종매 3만원	오지현 4만원
오지현 4만원	차미희 3만원	차미희 3만원
이호진 1만원	이호진 1만원	

인등

최유자 1만5천원	최유자 1만5천원	임상순 1만원
김명숙 1만5천원	김명숙 1만5천원	정분쇠 5천원
강춘희 2만원	강춘희 2만원	황경란 1만5천원
황경란 1만5천원	이숙희 2만원	전재호 1만원
이경숙 5천원	이경숙 5천원	이숙희 1만5천원
이숙희 1만5천원	김명선 2만5천원	장옥주 1만원
장옥주 1만원	노경정 2만원	노경정 2만원
홍경숙 1만원	홍경숙 1만원	김분용 2만원
황국희 2만5천원	황국희 2만5천원	김숙정 6만원
김숙정 6만원	정순희 2만원	류윤희 1만5천원
류윤희 1만5천원	신정옥 4만5천원	신정옥 4만5천원
이선영 5천원	이선영 5천원	신인숙 5천원
신인숙 5천원	오창혁 1만원	오창혁 1만원
한천숙 1만원	한천숙 1만원	김영희 2만원
김영희 2만원	최기조 2만원	최기조 2만원
전재필 5천원	전재필 5천원	이승일 2만원
이승일 2만원		

초하루·축원

이영희 4만원	이영희 4만원	박정순 2만원
박정순 2만원	윤계한 2만원	윤계한 2만원
정연이 4만원	정연이 4만원	이선미 2만원
이선미 2만원	송애자 2만원	송애자 2만원
이태현 2만원	진영덕 2만원	진영덕 2만원
전태일 4만원	전태일 4만원	나형진 2만원
나형진 2만원	김지연 2만원	김지연 2만원
손향숙 2만원	손향숙 2만원	

평생위패

정광춘 5만원	정광춘 5만원
---------	---------

한평불사

서필희 1만원	서필희 1만원	손인숙 5만원
손인숙 5만원	김의환 2만원	도경식 2만원
도경식 2만원	나은숙 3만원	나은숙 3만원
정동준 3만원	정동준 3만원	정권환 3만원
정권환 3만원	박낙근 3만원	박낙근 3만원
김정숙 10만원	김정숙 10만원	강종태 10만원
강종태 10만원		

김수정 1만원	김연자 1만원	김연자 1만원
서상태 2만원	서상태 2만원	남경순 2만원
남경순 2만원	채영주 1만원	채영주 1만원
손동림 5천원	손동림 5천원	김영홍 15만원
김영홍 15만원	이혜선 10만원	이혜선 10만원
정영미 5천원	정영미 5천원	송순분 2만원
이연주 2만원	이연주 2만원	하재순 5만원
하재순 5만원	김성미 5천원	김성미 5천원
김애경 1만원	오현아 2만원	오현아 2만원
심영선 5천원		

기타

이관수 2만원	이관수 2만원	정영석 5만원
정영석 5만원	주석순 5천원	주석순 5천원
김재현 1만원	조전근 2만원	조전근 2만원

2012학년도 수능입시생을 위한 100일 기도 안내

법왕사에서는 100일동안 수험생들의 합격성취를 발원하는 기도를 봉행 드립니다.
입시생 가족들은 지극한 정성으로 불보살님께 기도를 올려
그 동안의 학습 노력이 원만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축원드려 자녀들이 원하는 목표치가
달성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를 발원드립니다.

- 입재 : 8월 3일 수요일 오전 10시
- 회향 : 11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

※ 시험치는 당일은 시험이 끝나는 시간까지 주지스님 집전으로 계속 기도 봉행합니다.

법왕사 어린이 합창단 단원모집

불교의 인재 양성을 위해 법왕사에서는 한국 불교의
미래와 희망인 불교어린이 회원을 모집합니다.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 개발로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키고, 대
인관계를 통한 인성교육으로 참된 어린이가 되는 인재 양성의
장으로 만들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부모님과 어린이의 많은 참
여 바랍니다.

또한, 미래의 주인공이 될 어린이에게 자신의 음악적 재능을
발굴하여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창의적인 어린이 육성을 위
해 어린이 합창단원을 모집합니다.



- ♣ 창단예정일 : 불기 2555년(2011년) 10월 중순
- ♣ 대 상 : 초등학교
- ♣ 모 집 : 수시 모집
- ♣ 법 회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 ♣ 장 소 : 법왕사 복지관 2층
- ♣ 지 휘 자 : 최수련 선생(한국동요문화협회 대구·경북 지회장)

※ 일일 교사를 초청합니다.
※ 문의 및 접수 : 법왕사 증무소 053-766-3747
※ 홈페이지 : www.bubwangsa.or.kr

“소통과 화합으로 함께하는 불교”

(제22회) 경율론 삼장(經律論 三藏) 百高座 大說法會

百高座法會란 불상과 보살상과 나한상을 각각 백분씩 모시는 한편, 백명의 법사를 청하여 사자좌(獅子座)에 모시고 100일간 법문을 청하는 의식입니다. 특히, 나라의 편안과 백성의 고통을 구제하기 위해 100일간 100인의 큰스님을 초청해 설법하는 전통불교법회로 송유억불 정책으로 조선시대 이래 맥이 끊어졌던 것을, 저희 법왕사에서 매년 百高座法會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대승불교의 진면목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으며 “불교의 세계관과 역사적 실천론이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이론으로 쓰여진 법화경과 화엄경을 위주로, 올해도 저희 법왕사에서는 소통과 화합으로 함께하는 불교를 전하고자 제22회 경율론 삼장 백고좌 대설법회를 법담 30년이상의 대덕스님을 초청하여 봉행하고자 합니다.

경전강의에 관심이 있거나 불교교리를 배우고자 원하시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바랍니다.

- ❦ 입재 : 불기 2055년(2011년), 8월 31일, 오전 11시 30분 (100일간)
- ❦ 회향 : 불기 2055년(2011년), 12월 13일, 오전 11시 30분
- ❦ 장소 : 법왕사 복지관 큰법당(3층)
- ❦ 증명 : 무진장, 도문, 밀운, 정무 (조계종 대종사)
- ❦ 진행 : 실상 합장
 - 매일 오전 09시 30분에 108배 2회를 주지스님이 직접 집전합니다.
 - 백고좌 법회 기간중에 49재 영가를 접수합니다.



도문스님	각성스님	각현스님	철운스님	환안스님	혜월스님	화정스님	종연스님	도오스님	적문스님
제1일차_8월31일	제2일차_9월1일	제3일차_9월2일	제4일차_9월3일	제5일차_9월4일	제6일차_9월5일	제7일차_9월6일	제8일차_9월7일	제9일차_9월8일	제10일차_9월9일
조계종 원로위원	화엄사 주지	연꽃미를 대표	법주사 강주	한국불교공관선원총재	동화사수련원장	명법사 주지	수미정사 주지	한중불교회원장	평택수도사주지



지장스님	세준스님	연담스님	경성스님	암도스님	정현스님	현각스님	혜해스님	인환스님	대우스님
제11일차_9월15일	제12일차_9월16일	제13일차_9월17일	제14일차_9월18일	제15일차_9월19일	제16일차_9월20일	제17일차_9월21일	제18일차_9월22일	제19일차_9월23일	제20일차_9월24일
초계종 차명상선원장	무상사 주지	천제사 주지	해인사회장대	마하무량사 회주	지정대사 주지	성불원장	은혜사연수원장	경국사회주	백련선원



금종스님	정목스님	실상스님	정하스님	효상스님	지운스님	대주스님	송담스님	반산스님	선일스님
제21일차_9월25일	제22일차_9월26일	제23일차_9월27일	제24일차_9월28일	제25일차_9월29일	제26일차_9월30일	제27일차_10월1일	제28일차_10월2일	제29일차_10월3일	제30일차_10월4일
해광사 주지	정토원 주지	법왕사 주지	전뉴목 불국사 주지	가창 신흥사 주지	지비선사 주지	인천 정토사 주지	용화선원장	원각사 주지	법명사 주지